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6호

[김현수 칼럼]

‘서류상’공약과 정책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장애인의 날 칼럼]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향한 길

양한나 백석대학교 교수

학생선수는 스포츠지식, 일반학생은 교과지식 서로 나눠

서울교육청, 학생선수-일반학생 '또래 멘토링'..."기초학력 보장"

서혜림 연합뉴스기자

영국 연구진, 여성 엘리트선수 대상 최대 규모 설문..175명 참여

"세계정상급 여성 선수 77%, 스포츠에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

이의진 연합뉴스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파주시체육회 지도부 갑질 신고 '기각'

김요섭 경기일보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김현수 칼럼] '서류상' 공약과 정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앞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선거는 끝났고, 선심성 공약이든,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공약이든 내뱉어진 말들은 모두 정치인들의 부담이 되어 어깨를 무겁게 할 것이다.

이번 선거기간 나타난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정권심판론'이다. 현 정권의 소통 부재와 국정운영 미숙 문제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심판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동쪽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효했다.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편 가르기며, 색깔론을 따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냉정했다. 당장의 민생고 앞에선 이념도, 진영도 무의미하다는 진리를 곱씹는 순간이다.

제22대 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을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에 치료라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의료와 보건 문제에 비해, 예방과 증진 측면에서의 '적극적' 공약은 부족한 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와 관련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뭔가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대부분의 정당은 환경문제를 공약의 큰 카테고리에 포함하고, 각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생활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정치나 행정에서 총론은 있는데, 각론의 구성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대개 총론 자체가 아직 표류하는 경우라는 점을 미루어보면 아직 실천 의지는 크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하계파리올림픽을 대하는 프랑스인들의 태도는 환경정책이 온갖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우리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이들이 올림픽을 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덜 짓는 방식"을 선호하고, 이로써 환경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대회 중 먹거리까지도 식물성 제품과 지역 농산물을 조달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더해 '대회를 위한 기후 코치(Climat coach for events)'를 개발하여,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각자의 탄소발자국을 확인하고, 맞춤형 탄소배출 절감 방법을 제공 받아 실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프랑스가 과거와 같은 개발 일변도의 올림픽 손님맞이를 지양하고,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맞아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더불어 정부가 실천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를 올림픽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 덕분이다. 얼마 전 한국 사회가 올림픽을 개발특수로 이해하고, 짓지 않아도 될 경기장을 최대한 짓고, 분산개최도 거부했던 부끄러운 방식과는 크게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정책이 어떻게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은 급한 불을 끄고자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 공약들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발로 뛰었다. 하지만 또 다시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을 그 정책들을 알뜰히 기억해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또 '지연된' 환경 정의는 후대에 큰 빛으로 남을 것이 확실하다. 파리 올림픽이 남기고자 하는 그들만의 올림픽 유산은 지속가능성이었다. 프랑스의 국민들은 스스로 지속가능한 스포츠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중한 경험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렇게 또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정책은 이렇게 자발적인 실천을 담보로 만들어져야 하고,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무르익을 수 있다. 늘 공염불이 되는 '서류상 정책과 공약'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 칼럼]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향한 길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며,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 국민 중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응답자의 77.3%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이며 운동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증대,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거나 취미로 즐기고 있다.

운동하는 장애인의 모습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다. 장애 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했다.

전 국민의 5.1%, 즉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또는 운동 중에 만나는 사람 20명 중에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의 불편함,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높은 빈곤률도 또 다른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25.3%는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7.6%나 됐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

장애인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장 계속

특히 장애인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도 도움 된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배, 당뇨 2.5배,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았다. 특히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 진짜 장벽은 우리의 인식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것의 실현도 어렵고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나의 배려가 요구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거나,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다.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양한나 교수

서울교육청, 학생선수-일반학생 '또래 멘토링'... "기초학력 보장"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학생과 짝을 지어 서로의 학습을 돕는 '또래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돼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생 선수는 운동 연습을 해야 하므로 일반 학생보다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 관내 모든 학생 선수에게 '맞춤형 학습 플래너'를 배부한다.

나아가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는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서로 학습 교류를 하는 '또래 멘토링'을 진행한다.

학생 선수는 일반 학생에게 교과 지식을 배우고, 일반 학생은 학생 선수에게 스포츠 지식을 배우는 상호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하는 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라면 참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선수 학습지원 사업은 학생 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인원을 줄이는 수준의 목표를 넘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세계정상급 여성 선수 77%, 스포츠에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엘리트 선수 대부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선수와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와 스완지대 연구진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스포츠 학술지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엘리트 여성 선수 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하키, 카누, 럭비, 육상, 수영 등 다양한 종목 선수로 꾸려진 응답군 중 58%가 스포츠는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진이 '월드클래스'라고 분류한 종목별 주요 세계 대회, 올림픽, 패럴림픽 출전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77%까지 올라갔다.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거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더라도 신체적으로 여성이 아니라면 함께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반응이 우세한 것이다.

설문에는 각종 세계 대회 챔피언 26명, 올림픽 출전자 22명, 패럴림픽 출전자 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올림픽 메달리스트(금메달 2명, 은메달 2명, 동메달 3명)다. 175명 가운데 107명(평균 나이 26세)은 현역, 68명(38세 6개월)은 은퇴 선수다.

이번 연구는 성전환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장 포괄적이고 큰 규모의 조사다. 지난달 26일 영국 BBC방송도 자체 조사 결과 자국 여성 선수 70%가량이 성전환 선수와 경쟁이 불편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BBC 설문에는 100여 명이 응답했다.

이번 연구를 보면 종사하는 스포츠의 성격에 따라 반응도 달랐다. 럭비 등 신체적 충돌이 잦은 종목 선수들은 47%가 성전환 선수와 경쟁이 부당하다고 봤다.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8%, 그 중간을 택한 비율은 15%였다. 육상처럼 신체 능력 자체가 매우 중요한 종목에서도 부당하다는 의견(49%)이 그렇지 않다는 쪽(38%)보다 많았다. 그러나 양궁 등 운동능력보다 집중력이 중요한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부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32%까지 떨어졌다. 오히려 부당하지 않다는 반응(51%)이 더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 대부분(94%)이 정체성대로 생물학적인 성을 바꿀 권리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종목별 주관 단체들이 성전환 선수를 위해 더 포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81%나 됐다. 66% 응답자가 현 체제에서 성전환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였다.

여성 엘리트 선수들이 '인권' 측면에서는 성전환 선수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양면적 반응은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오면 '공정'이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부각된다는 방증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1년 성전환 선수의 자격의 초점을 남성 호르몬 수치에서 경기력 우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바꾸라는 새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각종 요법으로 불편을 참으며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야 했던 성전환 선수들에게 환영받으면서 포용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역풍이 거세다.

IOC의 하위 단체 격인 주요 종목별 국제연맹들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불허하는 추세다. 성전환 여성으로 국내 최초 공식 대회에 나선 사이클 선수 나화린 씨도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성전환 부문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성전환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여성 선수에게 불공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취지다.

파주시체육회 지도부 갑질 신고 '기각'

2024년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2개의 체육대회로
대회정보는 아래의 각 홈페이지를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선 2기 파주시 체육회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갑질 등 첫 내부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관리자로서 적절한 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윤리센터)와 파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지난 8일 파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내부 신고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을 토대로 기각 결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보했다.

앞서 파주시체육회 A 전 팀장은 지난해 7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도부로부터 상식 밖의 지시를 받았다는 등 두 가지 이유를 사직 사유로 들었다. 이어 2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성선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을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해 내부 신고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해 출범한 윤리센터는 이에 A 전 팀장의 신고건과 관련해 성선미 사무국장을 상대로 출석요구와 소명서 제출 등 6개월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센터는 A 전 팀장이 제기한 내부신고 건을 4개항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혐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실제 윤리센터는 성선미 사무국장의 강압적 태도와 관련, 관리자로서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은 행사 진행 실수에 대한 지적 질책으로 신고인(A 전 팀장)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술 시중 강요는 워크숍 준비에 따른 업무가 분장돼 있었고 피신고인(성선미 사무국장)이 술을 따라 준 적도 없고 술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술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근로시간 외 부당 업무 지시는 성선미 사무국장이 A 전 팀장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사실은 업무 지시에 이르는 정도로 파악하기 어렵고 호응하지 않았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리센터 측은 "신고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 상급단체 통고 없이 당사자들에게만 결정 결과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성선미 사무국장은 "윤리센터 신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 넘는 말도 안되는 글이 퍼져 가족까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종훈 파주시 체육회장은 "조직 내부에 불순한 세력들이 체육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팀장은 "(윤리센터 기각 결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한층 개선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40422511535>

올해 전주서 24개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풍성'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2055200055?input=1195m>

'2024 의왕시장배 종합체육대회' 4000명 참여 속 성황리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5393102>

18회 충북 장애인도민체육대회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11126>

대한체육회, 6월 23일 '올림픽데이런 2024' 티켓 판매 시작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4220145>

'8강 신화' 신태용 몸값 폭등! 인도네시아 체육부장관까지 나섰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850309#google_vignette

전주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객 응급상황 대비 'QR코드' 제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221342371864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충주시체육회,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11135>

울산서 한일 생활체육교류 잔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247>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